Session 12 친밀함의 기름부음을 기경하기 (마 25:1-13) (Cultivating the Oil of Intimacy)

I.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한 비유의 전후 문맥 (마 25:1-13)

A. 마태복음 24-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지막 때에 대해 가르치셨고(마 24:3-44), 이에 대한 적용으로 세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마 24:45-25:30), 마지막으로 그분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 설명하셨다(마 25:31-46). 마태복음의 이 두 장의 내용은 "하나의 가르침"으로써, 리더들을 마지막 때에 대해 준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1. 비유 #1 : **예수님의 오심이 지연되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짧다**(예수님께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오신다). 마 24:45-51절의 착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종류의 리더를 대비시킨다. 악한 리더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권세를 남용했다.

2. 비유 #2 : **예수님의 오심이 지연되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길다**(예수님께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오신다). 마 25:1-13절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는, 우리의 신랑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기경하며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옳지 못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잘못된 영**을 가지고 일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을 등한시했다.

3. 비유 #3 : **예수님의 오심이 지연되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다.** 마 25:14-30절의 충성된 종의 비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작아 보이거나 어려워 보이는 때일지라도(마 25:21,24) 충성되게 섬길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작은 사역적 책임을 맡고 있다. 옳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 **잘못된 평가를 내렸고**, 자신의 일을 등한시했다.

B.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의 세 가지 측면, 즉 신랑이자 왕이시며 심판자이심을 강조하실 것이다(마 24-25장; 계 19장; 사 61-63장; 시 45편). 우리는 우리를 향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왕이신 그분의 권능을 경험하며,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하시는 심판자이신 그분의 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 24-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의 이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신다.

C. 마 24-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가 대 환란 가운데 권능과 승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 교회는 대 환란의 마지막에 휴거될 것이다. 교회는 대 환란 때에 이 땅에 있을 것이며, 예수님과 동역하여 이 땅에 그분의 영광을 풀어놓게 될 것이다.

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 31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휴거) ***(마 24:29-31)***

D.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 준비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은 **깨어있어야** 한다는 부분이며, 이

는 성령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기경하는 것을 말한다(마 24:36,42-44,50; 25:13; 막 13:33-38; 눅 21:36; 계 16:15).

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마 24:42)

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 25:13)

E. 첫 번째 비유에서(마 24:45-51),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먹이는 리더십들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리더들로 구분하셨으며, 이는 악한 리더들과 대비되는 존재였다. 다음으로 오는 두 개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25:1-13), 충성된 것이 어떤 것인지(25:14-30)에 대해 말씀하셨다.

II.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 지혜로운 리더십에 대한 정의

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마 25:1-2)

A. **처녀** :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의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와 같다(고후 5:17).

2 ...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후 11:2)

B. **등** : 처녀들 각자는 등을 들고 있었고, 이는 하나님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는, 사역을 말한다(마 5:15-16; 계 1:20; 2:5; 11:3-6; 슥 4:2; 사 62:1; 요 5:35).

C. **신랑** : 여기서의 모든 사역들은 신랑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있었다. 이 사역들은 신랑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그분을 경험한 사역들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 (계 22:17)

D. **그 때에** : "그 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여기서의 "그 때"는 바로 앞 마태복음 24장에서 강조된 마지막 때를 말한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때이다.

III. 다섯 지혜로운 처녀들 : 사역의 등불을 비추는 동안에도 기름을 얻음

2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 25:2-4)

A.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짐을 받는 시간이다(고전 1:21; 요일 2:20,27). 기름은 등을 밝히는 연료로 사용되었으며, 음식과, 병을 고치는 약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성령님의 기름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지신다.

1. **이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더욱 느낄 수 있다.

2.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크게 한다.** 이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갈망을 경험함으로 부어진다.

3. **우리의 이해를 더욱 밝혀준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계시에 대해.

4. **의를 향한 열심을 우리에게 부어주며**, 우리를 공격하는 죄와 맞서는 우리의 싸움을 돕는다.

B. 미련한 처녀들은 등(사역)을 가지고는 갔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즉,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기름을 먼저 얻기보다 사역을 자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추구했다.

C.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갔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확장하고 조직하기 이전에 기름을 얻는 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추구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지는 관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dream)"이며,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다. 두 증인은 "기름 발리운 자 둘"을 말한다(슥 4:14, 계 11:4).

IV.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 사역 : 세 가지 외침

5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6 밤중에 소리**(표준새번역 :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마 25:5-7)

A. 역사의 밤의 한 중간에서, 선두주자들은 열방에 세 가지 메시지를 외치게 될 것이다. 이 구절들은 선두주자들의 3중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다.

B. 첫째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가져오실 명백한 승리와 심판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부흥의 파도를 점진적으로 풀어놓으시며 "우리에게 오실" 것이며, 이 부흥의 파도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실 때까지 권능과 강도가 점점 더 커지고 강화될 것이다.

C.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신 **신랑이신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는 것이다.

D. 셋째로, 우리는 **그분을 맞으러 나가야 하며**, 예배와 순종, 기도와 말씀, 금식을 통해 우리 자신을 그분을 경험하는 자리에 두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E. 우리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기름을 기경해나가야 한다.

5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 7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마 25:5-7)

F. 그들은 모두 잠들었고, 모두 등을 준비했다. 이 비유에서 잠들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이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한다. 우리는 삶의 가혹한 시간, 일상적이며 평범한 시간 가운데도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모두 잠들었으며,

삶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겪고 있다(마 25:5; 막 4:27).

V.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기름을 기경할 것에 대한 엄청난 필요를 강조하셨다

A.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이 기름을 등한시 했던 실수를 인식했다.

8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9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한글 KJV : 아니라, No)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마 25:8-9)

B.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영적으로 지내온 시간들과 영적인 예비됨은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C.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 삶을 바꿔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를 확보할 수는 없으며, 이를 얻기 위해 값비싼 희생을 치르며 우리 자신을 투자해나가야 한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 (계 3:18)

D. 기름을 얻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두게 된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호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IHOP.org의 "How to feed on God's Word" 긴 버전의 노트 참조)

39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경험함) (눅 10:39)

VI. 다가올 성령님의 파도를 예비함

10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점진적인 부흥의 시즌)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은 닫힌지라 1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12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 25:10-12)

A. 이 구절은 구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하셨고, 신랑이신 그 분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로 인식하지 않으셨다.

B.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그분과의 친밀함이 부족함을 언급하고 계신 것이다. 이는 그들의 구원과 관련된 언급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악하거나 저주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으며(마 24:48; 25:26,41), 그들을 전혀(never)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마 7:23).

C.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며칠 밤 동안 혼인 잔치를 여는 부분이 있다(부유한 가정은 이상적으로 7일 밤

동안 잔치를 연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첫째 날 밤부터 초대받았다.

D. 유대인의 혼인 잔치가 7일을 지나면서 매일 저녁마다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성령님의 파도를 풀어놓고 계시며, 이는 마지막 때 부흥의 충만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증가되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인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있게 될 것이다(계 19:7-9).

E. 오직 신랑과 친밀함으로 준비되었던 자들만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즉, 미리 준비되었던 자들만이 그분과 함께 들어갔으며, 마지막 때의 부흥에서 강력하게 사용되었다.

F. 미련한 처녀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또는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우리도 사용하여 주소서." 많은 이들이 온전하게 사용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G.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충고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신랑이신 그분과의 친밀함을 적극적으로 기경해나가라는 것이다.

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 25:13)